

2026년 주님의교회 표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1

-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_ 디모데전서 4:5
-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17-18

오늘의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말이지요.

빌립보서 3:10 (새한글성경)



02 | 고난주간 03 | 특별새벽기도회

2026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는 “십자가와 은혜”라는 주제 아래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깊이 묵상하며, 단순히 바라보는 신앙을 넘어 삶으로 살아내야 할 믿음의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과 섬김, 그리고 평안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04 | 성금요일예배

2026년 성금요일예배는 말씀과 찬양, 기도와 묵상이 어우러진 ‘십자가 여정’으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도록 이끈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예배를 통해 성도들은 십자가를 단순한 사건이 아닌 ‘나를 위한 사랑’으로 고백하며,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05 | 장애인사역부 주관 수요일예배

장애인사역부가 주관한 수요일예배는 말씀과 간증을 통해 장애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도록 이끈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장애를 ‘도움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하며, 교회와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06 | 무지개잔치

2026 전교인 무지개잔치는 “미션 빌더스”라는 주제 아래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공연, 먹거리와 나눔을 통해 복음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선교적 삶을 다시 새기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07 | 2026 비전트립 물품후원 행사

2026 해외 비전트립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여정으로, 성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사역입니다. 이번 모금 행사는 각 선교지의 필요를 나누며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귀한 동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08 | 교회대청소

부활절을 앞두고 남여선교회와 청년부가 함께한 교회 대청소는 사랑과 섬김의 손길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날의 현장은 사진을 통해 생생하게 담아, 공동체가 함께 준비한 은혜의 순간을 나눕니다.

09 | 부활절 야외예배 / 너나들이 칸타타

유아숲1부와 영아부 부활절 야외예배는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찬양이 어울어진 너나들이 칸타타는 찬양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드린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10 | 청빙위원회 구성

제6대 담임목사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청빙 사역의 여정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청빙 과정은 교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영적 여정으로, 온 공동체의 관심과 기도를 통해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11 | 십자말풀이

이번 호의 성경 십자말풀이는 신약의 열여섯 번째 책, 디모데후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문제를 풀어가며 교회와 신앙의 원리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초대합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십자가를 지나, 은혜로 살아가는 길

2026년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는 “십자가와 은혜”라는 주제 아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잠실교회 은퇴목사이신 림형천 목사님께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이신 박경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두 분 목사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었고, 그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도록 이끄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다시 일어설 용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난주간의 새벽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유유히 부서와 교구별로 돌아가며 특송을 맡아 마음 다해 찬양의 자리를 채웠고, 각자의 삶의 무게를 안고 예배의 자리로 모여든 우리의 발걸음은 어쩌면 이미 하나의 고백이었던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번 주간만큼은 십자가 앞에 머물며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머문다는 것은 슬픔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고 신앙의 중심이 다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는 우리에게 바로 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에서 멈추지 않고, 십자가를 살아내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준 시간이었습니다.

상관없는 신앙에서 “연결된 신앙”으로

첫째 날, 우리는 낮설고도 분명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 속해,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다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상관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내 기준으로 흘러갑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신앙을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씻어 주시는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됩니다.

버림받음의 자리에서 시작된 “사랑”

둘째 날,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들려온 가장 깊은 절규를 마주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모국어로 외친 예수님의 절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받으셨고, 그 버림받음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감당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정죄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결정된 사건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가볍게 살 수 없고, 더 이상 자신을 함부로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 십자가를 기준으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

셋째 날,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사랑이 내 감정과 판단에 따라 움직였다면, 이제는 십자가가 그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의 사랑도 조건과 계산을 넘어 은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일상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섬김”으로 완성되는 사랑

넷째 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겹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배신할 제자들까지도 품으신 그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말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결국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섬김은 단순히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상대의 필요를 먼저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따라 겸손의 수건을 두르고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생명”

다섯째 날, 우리는 한 알의 밀을 보았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는 죽음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은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자리, 나의 계획, 나의 자존심들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부인의 결단이 없다면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때로 “그러나”라는 한 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순종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맡깁니다.” 그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이며,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근심을 넘어 “평안”으로

마지막 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

시지만, 의식주, 미래, 관계 등 우리는 삶 자체가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 세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믿음과 기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이며, 기도는 닫힌 길을 여는 열쇠이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흔들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줍니다.

십자가를 지나, 이제 받은 은혜로 살아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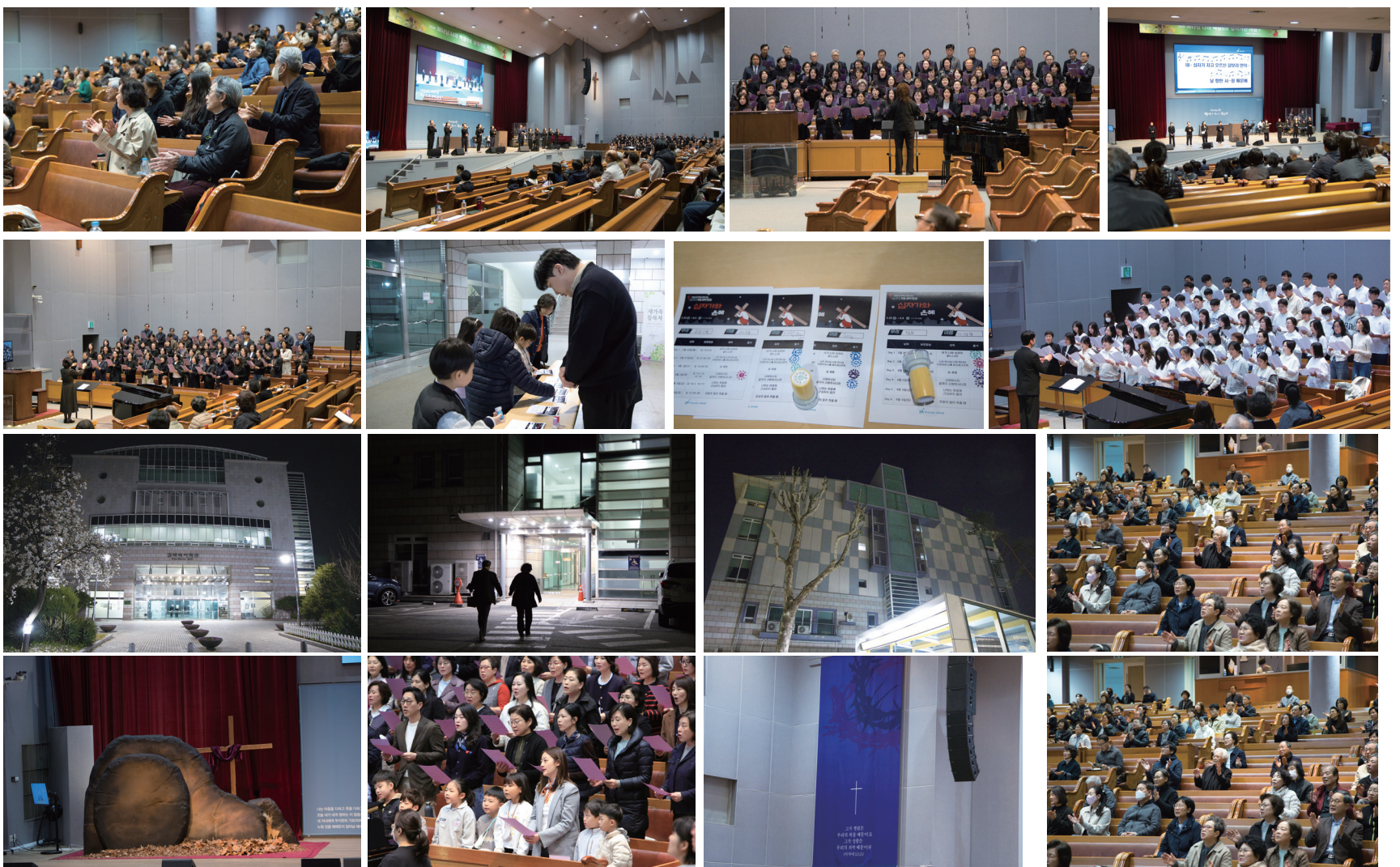
이제 고난주간은 끝났지만 십자가의 길은 계속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과 상관있는 삶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낮아져 섬기며, 한 알의 밀로 살아가고, 근심 대신 평안을 선택하는 삶. “이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나 은혜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2026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길 위에 서겠습니다.”

함글함글



성금요일예배

십자가의 길을 따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다

주님의 고난을 함께 걷는 은혜의 시간

지난 4월 3일(금) 오후 7시, 주님의교회는 성금요일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예배는 단순한 순서의 나열이 아닌, 말씀과 찬양, 기도와 침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십자가 여정’으로 구성되어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였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예배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어둡게 낮춰진 조명과 절제된 찬양은 성도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십자가 앞으로 이끌었다. 이번 성금요일예배의 핵심 주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과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단순히 사건을 회상하는 것을 넘어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개인적 고백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되었다.

예배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라는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닌, 성도 각자의 삶에 깊이 새겨지는 선언이 되었다.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십자가의 의미

이번 예배의 특징 중 하나는 ‘찬양과 침묵의 균형’이었다. 단순히 많은 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곡 한 곡이 메시지를 담고 이어지며 성도들의 내면을 열어가는 역할을 했다. 찬양은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고, 침묵은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했다.

특히 중간중간 삽입된 기도 시간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성도들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의 ‘동행자’가 되었다. 각 기도는 회개, 감사, 결단의 흐름으로 이어졌으며,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신앙을 깊은 자리로 이끌었다.

십자가의 사건을 ‘현재’로 경험하다

이번 예배는 매우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각 순서는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되었으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의 미를 점진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성경 봉독과 찬양, 메시지, 그리고 묵상의 흐름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그 속에 담긴 사랑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예배의 후반부로 갈수록 성도들의 마음은 더욱 깊은 감동과 경외로 채워졌다.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고백

성금요일예배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개인적인 고백’이었다. 예배는 단순한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 각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도록 인도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후 “십자가가 다시 새롭게 다가왔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는 이번 예배가 단순한 행사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공동체가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이번 성금요일예배는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교회는 하나의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순서와 역할을 맡은 봉사자들의 헌신은 예배의 깊이를 더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한 수고와 기도가 있었기에, 성도들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다.

더 기쁘게 맞이한 부활

성금요일예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번 예배를 통해 성도들은 고난 없는 영광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부활절을 더욱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더 기쁘게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절정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번 성금요일예배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작이 되었기를 소망한다.

맺으며

2026년 성금요일예배는 단순한 절기 예배를 넘어, 성도 각자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말씀과 찬양, 기도와 묵상이 어우러진 이번 예배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했다.

다가오는 부활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것인가. 그 답은 이미 십자가 앞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한다.

함줄함울



장애인사역부
수요예배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읽는 교회

장애인사역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수요예배가 지난 수요예배(4월 8일)를 시작으로 3주간의 여정을 열었다. 그 첫 시간에는 안중온누리교회 양인순 목사님께서 말씀을, 둘째 아들인 양근환 화가 겸 장애인식개선 강사가 삶의 간증을 전하며, 우리 교회가 어떤 시선으로 장애를 가진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히 장애에 대한 정보를 전달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공동체를 세워 가는 믿음의 방향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양인순 목사님은 빌립보서 1장 6-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마음으로 세상 읽기,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 목사님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들 역시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장애를 가진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권면했다. 특별히 장애를 죄나 심판의 결과로 보던 시선을 바로잡으며, 요한복음 9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시며, 장애인을 단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문화 향유권 등 장애인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삶의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며, 교회와 사회가 배려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전했다. 누구나 공평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사례를 소개하시며, 배려는 특별한 호의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일깨워 주었다.

이날 예배가 더욱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말씀이 곧바로 삶의 이야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양인순 목사님은 희귀난치성 질환 PWS를 지닌 아들을 키워 온 아버지로서의 시간을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목회자로서 늘 고난 속 하나님의 뜻을 설교해 왔지만, 막상 자신의 가정 안에 그 고난이 들어왔을 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아들의 반복되는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분노하고, 눈물 흘렸던 시간들 까지도 숨기지 않고 나누는 모습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다.

이어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인 양근환 강사를 소개하였고, 양근환 강사가 직접 단상에 올라 자신의 삶을 들려주었을 때, 모두가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는 PWS로 인해 성장도 늦고 공부도 쉽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계속 먹고 싶은 마음”과 싸우며 살아왔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아픔으로만 머무르지 않았다. 코로나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 수능에 도전했고, 대학에 진학했으며, 장학금도 받았고,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이라는 열매도 맺었다. 또한 바리스타와 제빵을 배우고, 스페셜 올림픽 수영대회에도 출전했으며, 지금은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이자 화가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전한 이야기 중에 마음에 남은 것은 그의 짧지만 분명한 부탁이었다. “저를 볼 때

‘도와줘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문장은 이날 세미나 전체를 관통하는 고백처럼 전해왔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달라도 괜찮으며, 조금 더 기다려 주고 이해해 준다면 우리는 충분히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그의 말은, 장애인식 개선이 결국 제도의 문제를 넘어 관계와 마음의 문제임을 보여 주었다. 양근환 강사가 소개한 그림들은 또 하나의 간증이었다. 풍성한 삶, 받아들이는 기쁨, 희망, 자유, 행복을 담아낸 작품들은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 주었고, 장애를 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모두에게 보여 주었다.

이날 예배는 또 하나의 뜻깊은 나눔으로 이어졌다. 양인순 목사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인 ‘피어라 공동체 마을’ 계획을 우리 주님의교회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장애인들의 꿈과 자립, 그리고 부모들의 삶이 함께 피어나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는 치유와 회복, 일터와 마을이 어우러진 공간을 꿈꾸고 있다. 목사님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해 온 이 사역을 이날 나누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 어떤 길을 열어 가실지 기대한다고 고백했다. 또한 이 비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 줄 손길을 요청했다. 말씀의 마지막에서 목사님은 이지선 교수의 책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언급하며, 인생의 아픔과 상처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충분히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고백은, 설교와 간증 전체를 하나로 묶는 소망의 결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내미는 손을 통해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신다는 믿음이 예배 당 안에 잔잔히 번져 갔다.

특히 사랑나무부에서 2주간(4/12, 4/19) ‘장애인 자세히 알기’라는 주제로 장애인 인식개선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목사님은 수요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할 중요한 질문을 던져 주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장애를 가진 이웃을 여전히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서로를 향해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일일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세미나의 시간도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하고 더 넓은 품을 가진 공동체로 자라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날 처음 공개된 ‘피어라 공동체 마을’의 비전 위에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고, 이 사역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동역할 손길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함글함글**

* Prader-Willi syndrome (PWS) 프라더-윌리 증후군은 아버지로부터 15번 염색체의 특정 유전자를 물려받지 못한 경우 나타나는 유전병이다. 근력저하, 감각장애, 발달장애, 지속적인 배고픔, 행동문제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2026 무지개잔치

미션 빌더스, 함께 하는 무지개잔치

2026년 주님의교회 전교인 무지개잔치가 "미션 빌더스(Mission Builders)"라는 주제로 오는 5월 5일(화, 어린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의교회 운동장(정신여중고 외)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지개잔치는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기쁨으로 나누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패밀리존에는 종이피리와 키링 만들기, 요술팔찌 만들기, 비치백 꾸미기, 색칠풍선과 부채 만들기, 썸캡만들기, Make it(디폼블럭), Play it(게임), Grip it(그립톡), Save it(달고나), Take it(풍선) 가족 단위의 참여형 체험이 준비되어 있으며,

플레이존에는 유로번지, 바이킹, 에어바운스, 두더지게임, 농구게임, 해머게임, 회전라이더, 전동기차, 포토존, 레트로존 등 즐길거리로 가득합니다.

푸드존에는 떡볶이, 찹스테이크,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팝콘, 꼬마김밥, 파배기, 커피, 국밥 등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되며, 푸드트럭(타코야끼, 소떡소떡)도 함께 운영됩니다.

교육부스존에는 주님의교회 다음세대 유유청청과 가정사역원에서 마련한 신앙교육과 가정 회복에 대한 나눔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공연존에서는 오후 1시부터 가스펠버블쇼가 진행되어 가족과 이웃 모

두가 즐겁게 복음을 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오후 12시 **해피존**에서는 다양한 선물과 이벤트가 진행되어 분위기를 한층 풍성하게 더할 것입니다.

2026 전교인 무지개잔치는 단순한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적 삶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모여 웃음과 감동을 나누며, 서로를 기쁘게 하고 격려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위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며, 가정과 다음 세대, 이웃이 모두 함께 모여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이 축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상훈 목사



2026. 5.5 (화)
오전 10시 ~ 오후 3시
주님의교회 운동장
(정신여중고 외)

전교인 무지개잔치

미션 빌더스

패밀리존	플레이존	푸드존	교육부스존	해피존
종이피리/키링 만들기 요술팔찌 만들기 비치백 꾸미기 색칠풍선/부채 만들기 썸캡 만들기 Make It (디폼블럭) Play It (게임) Grip It (그립톡) Save It (달고나) Take It (풍선)	유로번지 바이킹 에어바운스 두더지 농구 해머 게임 회전라이더 전동기차 포토존 레트로존	푸드트럭 타코야끼 소떡소떡 떡볶이 찹스테이크 아이스크림 꼬마김밥 파배기 팝콘 커피 국밥	주님의교회 다음세대와 가정사역을 소개합니다	해피권 추첨 이벤트 (오후 12시) 공연존 가스펠 버블쇼 (오후 1시)

주님의교회 무지개잔치

전교인 무지개잔치

미션 빌더스

2026. 5.5 (화)
오전 10시 ~ 오후 3시
주님의교회 운동장 (정신여중고 외)

지역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패밀리존	플레이존	푸드존	교육부스존	해피존	공연존
종이피리/키링 만들기 요술팔찌 만들기 비치백 꾸미기 색칠풍선/부채 만들기 썸캡 만들기 Make It (디폼블럭) Play It (게임) Grip It (그립톡) Save It (달고나) Take It (풍선)	유로번지 바이킹 에어바운스 두더지 농구 해머 게임 회전라이더 전동기차 포토존 레트로존	푸드트럭 타코야끼 소떡소떡 떡볶이 찹스테이크 아이스크림 꼬마김밥 파배기 팝콘 커피 국밥	주님의교회 다음세대와 가정사역을 소개합니다	해피권 추첨 이벤트 (오후 12시)	가스펠 버블쇼 (오후 1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화와 평강과 화락이라
로마서 14:17

주님의교회 무지개잔치

해외선교위원회
2026 비전트립

열방을 향한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2026년 해외 비전트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번 비전트립을 후원하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 4월 12일 주일부터 3주간 1층 로비에서 국가별 물품 후원 행사가 진행됩니다. 각 선교지의 소중한 사역을 살피시고 주님의 일하심에 기쁘게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6 비전트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방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 해외선교위원회는 올해 6개 지역으로 떠나는 비전트립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삶 속에서 직접 전하고자 합니다.

1. 중미 코스타리카: 땅끝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가장 먼 곳일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코스타리카의 험준한 산악 지역인 치리보 인디오 교회를 방문하여 현지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합니다.

일정: 7월 6일(월) ~ 7월 14일(화)

주요 사역: 축조 전도, 현지인 세례식 참여, 의료 및 이·미용 선교

담당: 금상호 선교사 / 김은희 권사 (010-5093-8577)

2. V국 :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는 위로

아픔과 외로움 속에 있는 환자들의 마지막 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웁니다. 기독교 호스피스 사역을 통해 의료 선교의 비전을 경험하고 현지인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일정: 7월 15일(수) ~ 7월 19일(일)

주요 사역: 호스피스 기본 교육, 방문 호스피스 및 병동 섬김, 어린이병원 방문

담당: 이믿음 선교사 / 진연미 집사 (010-5182-6397)

3. 필리핀 앙헬레스: 빈민촌에 피어나는 복음의 희망

딜라달라와 아이따 교회 공동체를 방문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음이 실질적인 희망이 되는 순간을 함께합니다. 특히 코피노 사역 현장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합니다.

일정: 7월 22일(수) ~ 7월 27일(월)

주요 사역: 빈민공동체 피딩 사역, 전도 축제, 코피노 센터 탐방

담당: 유성훈 · 이경 선교사 / 김지선 집사 (010-3288-3161)

4. 일본 사이타마: 열방을 잇는 전략적 선교

일본 내에서 진행되는 중국인 선교 사역이라는 특별한 현장을 경험합니다. 현지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에서의 선교적 관심을 확장하고 복음의 네트워크를 다집니다.

일정: 7월 24일(금) ~ 7월 27일(월)

주요 사역: 동경사이타마교회 및 사명교회 탐방, 한국 문화를 통한 새신자 초청 잔치

담당: 정현희 선교사 / 안경희 권사 (010-9097-5265)

5. 필리핀 끼나위: 미래 세대의 꿈을 키우는 도서관

교육에서 소외된 민다나오 끼나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도서관(리딩 클럽) 사역을 펼칩니다.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기쁨의 씨앗을 심습니다.

일정: 8월 13일(목) ~ 8월 18일(화)

주요 사역: 끼나위 도서관 꿈나무 축제, 가정 방문 및 유청소년과의 만남

담당: 송지형 · 서지은 선교사 / 김지선 집사 (010-3288-3161)

6. K국: 무슬림 땅에 세워진 신앙의 요새

이슬람 문화권의 중심에서 사역하는 연합 신학교의 30주년을 함께 축하합니다. 지친 현지 교수진과 교직원들에게 새 힘과 위로를 전하는 귀한 섬김의 자리입니다.

일정: 9월 1일(화) ~ 9월 8일(화)

주요 사역: 신학교 30주년 기념예배 지원, 선교 세미나, 태권도지도자훈련원 부지 방문

담당: 윤바나바 선교사 외 3인 / 윤경자 집사 (010-3050-0155)

참여 안내 및 모금 행사

성도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선교지의 영혼들에게는 큰 생명의 빛이 됩니다. 비전트립 팀원들이 현지 사역을 원활히 수행하고, 현지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모금 기간: 4월 5일(주일) ~ 4월 19일(주일), 3주간

장소: 교회 1층 로비 국가별 부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_ 사도행전 1:8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직접 발로 뛰는 헌신으로 함께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홍섭 안수집사 / 비전트립지원부 부장

2026 비전트립 후원해요

* 후원금 참여 안내

모집 기간 4월 5일 - 5월 5일

참여 방법
• 4월 12, 19, 26일 1층 로비 접수
• QR 코드로 간편 참여



선교지역	선교사	날짜
코스타리카	금상호	7.6(월) ~ 14(화)
V국가	이믿음	7.15(수) ~ 19(주일)
필리핀	유성훈	7.22(수) ~ 27(월)
일본	정수아	7.24(금) ~ 27(월)
필리핀	송지형	8.13(목) ~ 18(화)
K국가	윤바나바	9.1(화) ~ 8(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남여선교회
교회청소

부활절을 준비하는 손길, 사랑으로 교회를 가꾸다

부활절을 앞둔 토요일 아침, 남여선교회 회원들과 청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교회와 주변 환경을 정성껏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예배당과 학교 건물 주변 및 운동장, 교회 인근을 깨끗하게 정돈하며 부활의 기쁨을 준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히 살피며 섬김의 마음으로 헌신한 손길들은 교회를 더욱 밝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환경 정비는 단순한 청소를 넘어,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글함글



영아부
부활절 야외예배

흘날리는 벚꽃 아래에서 나눈 부활의 기쁨

지난 4월 5일 부활주일, 유아숲 1부와 영아부 가족들과 함께 교내 로데오 정원에서 야외예배를 드렸습니다. 봄날 흘날리는 벚꽃 아래에서 드린 예배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부활의 기쁨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부활의 의미를 함께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듯,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부활의 기쁨이 계속해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유아숲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영선 목사 / 유아숲1부 · 영아부

너나들이
부활절 칸타타

찬양으로 드린 부활절, 너나들이 칸타타

매주일 1시에 시작되는 너나들이 예배에도 찬양대가 있습니다. 중창단이어서 찬양대의 인원은 많지 않지만, 찬양을 향한 마음과 열정은 하늘에 닿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칸타타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니다. 우리 중창단의 규모에 적당한 곡의 선정, 찬양대원의 인원 보강, 연습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등 난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화로운 주 예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등 5곡으로 곡을 구성하고 나레이션을 넣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휘자의 열정적인 준비와 지휘에 힘입어 대원들의 마음과 목소리를 모을 수 있었으며, 소프라노와 테너의 독창과 섹스폰 독주도 있었고 피아노와 플루트의 선율이 합창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회중과 함께 합창함으로써 부활절 칸타타가 찬양대원들만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고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5층 너나들이 예배실의 좁은 공간에서 많지 않은 찬양대원들이 부른 부활절 칸타타였지만,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부활절 칸타타였다고 자평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닿아 휴전선이 열리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 억눌리고 숨어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북한의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홍완식 장로



청빙위원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청빙

2026년 3월 정기당회(3월 8일)에서 제6대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구성(안)이 승인됨으로써, 제6대 담임목사 청빙사역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담임목사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이를 신실하게 지켜오며 교회의 건강한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유산 위에 세워질 다음 청빙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온 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함줄함줄

청빙위원회 구성

청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총 5명의 시무장로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병길 장로

위원: 김광일 장로, 김낙균 장로, 최재경 장로, 홍완식 장로

또한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 모임과 영적 출발

청빙위원회는 2026년 3월 21일(토) 오전 7시, 첫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역이 단순한 행정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과정임을 인식하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빙사역을 위한 기도회에서 박민규 목사는 창세기 41장 37-4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사람의 기준이나 각자의 호불호, 외적인 화려함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말했고, 청빙위원회는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추진 과제 (2026년 3-5월)

청빙위원회는 초기 단계에서 ‘청빙에 대한 공동 이해 형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님의교회 1대 ~ 5대 담임목사 청빙 기록 자체 학습 및 워크숍
- 전문기관 자료 검토 및 타 교회 사례 연구(영상 포함)
- 전문기관 및 과거 청빙위원 면담 등 필요 자료 조사

이 과정을 통해 청빙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쌓은 후, 공동의 방향성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빙위원회 활동계획(Master Plan)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청빙위원회의 마음가짐

청빙위원회는 이번 사역을 다음과 같은 자세로 감당하고자 합니다.

- 교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명으로서 공동체의 중보기도를 의지하며
- 단순한 행정이 아닌 영적 과정으로 기도 중심으로 나아가고
- 의견의 차이를 넘어 공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연합과 협력을 이루며
-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

예배와 기도로 세워가는 청빙 과정

청빙위원회는 청빙은 단순한 ‘채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영적 여정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기로 하였으며, 청빙위원회 활동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에 정기적으로 모임 예정입니다.

성도님들께 드리는 요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청빙 과정이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이번 청빙 또한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 은혜 가운데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청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조병길 장로 / 제6대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위원장



• 제1대 이재철 담임목사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재임했다.

주님의교회 초대 목사로, 담임목사를 비롯한 항존직의 임기제 등 주님의교회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1998년 10년 임기를 마친 후 사임했다. 이후 스위스 ‘제네바한인교회’와 ‘100주년기념교회’에서 목회하고 2018년 은퇴했다.



• 제2대 임영수 담임목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재임했다.

평강교회와 남대문교회, 영락교회 담임으로 목회한 후 주님의교회에 부임했으며 특히 영성을 강조하여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새롭게 다듬었다. 2002년 사임한 후 경기도 양평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골짜기’라는 뜻의 모새골 공동체를 세워 사역하고 있다.



• 제3대 문동학 담임목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재임했다.

망우교회에서 담임으로 목회한 후 주님의교회에 부임했으며, 비전 중심의 목회를 추구했다. 주님의교회가 있는 터전의 특성을 바탕으로 교회의 이웃을 섬기며 청소년 선교에 집중하고 번식하는 교회의 기틀을 만들었다. 2006년 사임한 후 전문인 선교 분야에서 사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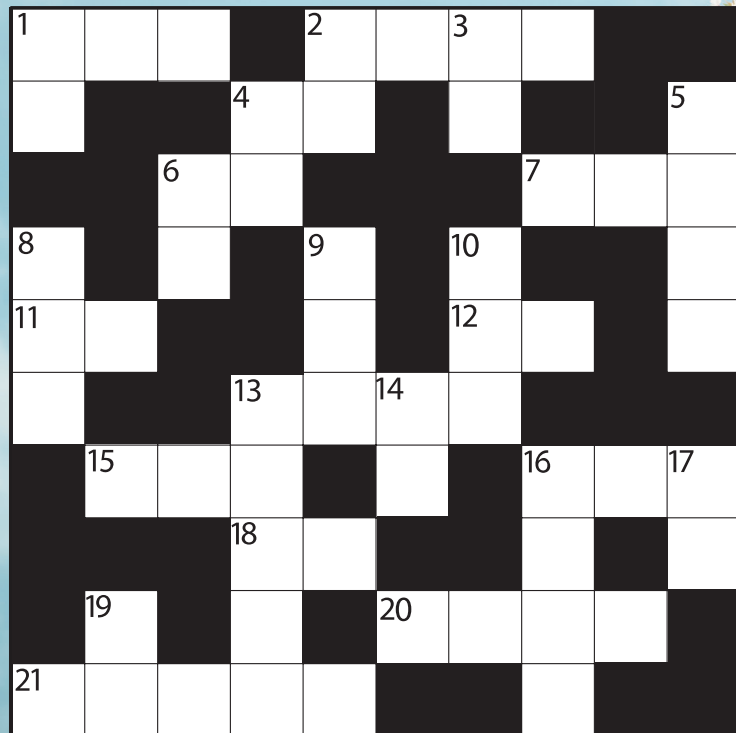
• 제4대 박원호 담임목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했다.

장로교신학대학 교수를 지내고 미국 디트로이트 한인교회에서 목회했다. 기독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썼다. 2017년 10년 임기를 마치고 사임하여 실천신학원대학교의 총장으로 부임했다.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디모데후서 편

이번 호는 신약의 열여섯 번째 권인 <디모데후서> 편입니다. 대략 주후 67년경 사도 바울이 사형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교리와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514호 디모데전서 편 정답



가로 힌트

1. 디모데의 외할머니. 유니게의 어머니로,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 (딤후 1:5)
2. 바울의 동역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갈라디아로 갔다. (딤후 4:10)
4. '대개는, '알려지기로는'을 뜻하는 부사. (딤후 3:12)
6. 그렇다고 여김. (딤후 2:15)
7. 바울의 동역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갖고 아시아를 방문했다. (딤후 4:12)
11. 이새의 막내 아들.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딤후 2:8)
12. 부모 위의 대대로 집안의 어른들을 두루 부르는 말. (딤후 1:3)
13.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다. (딤후 4:20)
15. 바울의 동역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갈라디아 지역으로 전도를 위해 떠났다. (딤후 4:21)
16. 에게해 연안에 있는 고대 도시. 바울과 전도와 사목을 했으며, 이곳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딤후 1:18)
18. 자식 가운데 남자를 부르는 말. (딤후 2:1)
20. 아굴라의 아내. 바울과 함께 에베소와 고린도 교회를 섬긴 여성 지도자였다. (딤후 4:19)
21. 에베소 교회의 성도. 감옥에 갇힌 바울을 자주 찾아가 보살폈다. (딤후 1:16)

세로 힌트

1. 이탈리아의 수도. 고대에는 제국을 이루어 지중해 연안을 다스린 큰 나라의 이름이었다. (딤후 1:17)
2. 주로 음식을 담기 위해 만든 작은 용기. 납작한 것도 있고 오목한 것도 있으며, 금속이나 사기로 만든다. 때로 사람의 역량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딤후 2:20)
3. 선생님을 높여서 부르는 말. 어떤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 분에게 주로 쓰인다. (딤후 4:3)
4. 정이 없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없어 쌀쌀함을 뜻하는 말이다. (딤후 3:3)
5.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 박해를 받았던 지방. 당시 안디옥, 루스드라 등에서도 같은 박해를 받았다. (딤후 3:11)
6. 참고 견딤. 이것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속담이 있다. (딤후 3:10)
8. 말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것. 이것이 발전하면 주먹다짐이 된다. (딤후 2:14)
9. 소아시아 출신 초기 기독교인. 바울이 두번째로 투옥되자 그를 배신했다. (딤후 2:2)
10.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를 말하는 한자말이다. (딤후 1:5)
13. 바울의 동역자.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신의 겂옷과 책을 맡길 만큼 신뢰했다. (딤후 4:13)
14.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는 것. (딤후 3:2)
16.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나로 파송되어 전도 사역을 수행했다. (딤후 4:20)
17. 신이나 시대가 주는 역할, 또는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일. (딤후 1:9)
19. 모세의 출애굽 당시 모세의 열 가지 재앙에 대적한 이집트의 마술사. 진리에 대적하는 배교자나 이단의 전형적인 모델로 인용된다. (딤후 3:8)
24.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는 것. 주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말한다. (빌 3:8)

온가족이 함께하는 성경필사

성경필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묵상보다 깊이, 통찰보다 강하게, 성경필사를 통해
'주님과함께' 하십시오.

2026년 성경필사 진행일정

- 1-3월 출애굽기
- 5-6월 레위기
- 9-10월 신명기

문의 박준범 목사 010.7164.5324

2026년 봄학기 양육클래스

신학 성장에 관한 기본교의 강령입니다. 신학의 기초를 두고 심도신분, 세기종 등
신학의 맛 살짝 보기1 김요한 목사 010-5187-0127
성경개관 : 신구약의 큰 흐름을 읽다 박준범 목사 010-7164-5324

주일 오후 2:30 성지순례에 참여하는 본부를 위한 사전교육입니다.
성지순례 박만규 목사 010-8790-9690
4/19(주일), 4/26(주일), 5/3(주일) 이상훈 목사 010-9808-4788

금요일 오전 10:30 성경에 관한 심화강좌입니다.
다윗의 삶 새롭게 읽기 이태욱 목사 010-7233-6796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 조현상 목사 010-5465-3497
요한복음에서 길을 찾다 차승천 목사 010-7544-3945

금요일 오후 2:00 김주환 목사 010-6233-3124
에스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김요기교회입니다.
금요일 저녁 8:00 배운환 목사 010-3138-3262
금요일에 시간 어떻게? 배운환 목사 010-3138-3262

토요일 오전 10:00 영성의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성훈련: 영성생활의 기초 탐구(1) 최대형 장로 010-3138-3262
토요일 오전 (교회밖) 함께 참여해 일 위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회비 10,000원
Road to Lord 배운환 목사 010-3138-3262
3/29, 4/25, 5/2, 5/30, 6/20

신명
신랑기간 **2/15 (주일) ~ 3/8 (주일)**
신랑방법 A. 각 가정 담당 강사에게 문자로 신청
B. 교회 홈페이지 - 양육과 훈련 - 양육 - '양육클래스'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문 의 배운환 목사 (010-3138-3262)

2026 항존직 선거 시행공고

- 항존직 선거 일정
 - 항존직 등 중직 직분자의 추천 투표 : **2026.3.8** (주일) 예정
 - 당회의 공천 투표 : **2026.4.12** (주일) 예정
 - 공동의회 선거 : 1차선거 **2026.5.10** (주일), 2차선거 **2026.5.17** (주일) 예정
- 항존직 선출인원 : 장로 10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0명
- 항존직으로 피택받을 수 있는 성도의 자격

구분	세례 입교 (선거일 기준)	등록 (선거일 기준)	연령 (선거년도말기준)	자질 및 성품	세움학당 이수여부 (선거년도말기준)
장로	7년	10년	만40세~65세 미만 1962.1.1~1966.12.31 출생자	성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이 있는 자	○
안수집사	5년	5년	만30세~70세 미만 1957.1.1~1966.12.31 출생자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	○
권사	5년	5년	만30세~70세 미만 1957.1.1~1966.12.31 출생자	교우들의 신앙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자혜의 분별력 있는 자	○

✓ 후보자의 추천 및 공천

① 추천투표에 참여하는 종직 직분자 :
· 항존직(은혜장로, 사임장로, 시무·은회 안수집사, 시무·은회권사, 합동장로)
· 거자씨 인도자
· 제직부서 부서장

② 공천투표 : 당회원

✓ 공동의회 선거

① 선거 참여 자격
· 선거시행공고일 기준 등록 1년 이상 된 자로서
현재 주님의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
· 선거시행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세례, 입교 교인

② 피택(선출)기준
· 장로: 총 유효 투표자의 2/3이상 득표자
· 안수집사, 권사: 총 유효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

2026년 1월 11일
주님의교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랑나무 함께알아가기

장애인 자세히 알기 세미나

4월 12일 오후 12시 30분
진영재 목사(산소망선교회)
- 우리는 아직
그 장애 아이를 다 모른다 -

4월 19일 오후 12시 30분
정명원 감사
- 장애인의 식미와 노화 -

장소 : 지하 1층 사랑나무실
대상 :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
시간 : 4월 12일, 19일 주일 오후 12시 30분

문 의 주님의교회

2026 봄학기 겨자씨 교육 룻기편

기간: 4/15~5/20 (5주간)

Vol. 2

2026 prayer 블레싱 남성 기도모임

일터에서 부름심을 감당하시는 형제님들
여기에 함께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내 용

제목 : 우리 자녀는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본문 : 신명기 6장 4-9절
일시 : 4월 25일(토) 오전 7:00 (소예배실)

문 의 : 김요한 목사(010.5187.0127)

주님의교회

교회일정

- 4/12 (주일) 정기당회
- 4/15,22 (수) 장애인부 주간 수요일예배
- 4/18 (토) 세움학당 상반기 종강
- 4/19 (주일) 주님과함께 5월호 판매, 성경필사 Vol.17 레위기 배부
- 4/19 (주일) 장애인주일, 국내선교 바자회 물품 모음
- 4/22 (수) 1/4분기 제직회, 하임찬양대 수련회
- 4/25 (토) 블레싱남성기도모임
- 4/26 (주일) 에바다/사랑나무 부서 초청예배
- 4/29 (수) 권사회 수련회, 호스피스 선교의 날
- 5/3 (주일) 어린이주일, 성찬주일
- 5/5 (화) 전교인 무지개잔치

알립니다

1. 유아세례교육

대상: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세례교인의
24개월 미만 아기
교육: 4/19(주일), 26(주일) 오후 2:30(온라인)
신청: 4/12(주일)까지
유아세례예식: 5/3(주일) 3부 예배시
문의: 오광순 안수집사(010.3351.9471)

2. 국내선교(협력교회)를 위한 물품 모음

일시: 4/19(주일) 오전 8:00~오후 2:00
장소: 1층 로비 안내데스크 옆
물품: 옷, 그릇, 생활용품, 장난감 등 모든 물품
(바자회 판매 가능한 물품만 받습니다)

모집합니다

1. 도서부 봉사자

매월 2, 4주 수요일 12:00~16:00 (1명)
매월 1, 3, 5주 토요일 10:00~13:00 (1명)
문의: 이은희 집사 (010.9197.5696)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화~금)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함줄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임익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줄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줄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십자말씀이 514호 정답자: 정현정 집사(5교구), 김희정 성도(8교구)

십자말씀이와 함줄함울 기사를 읽고 소감을 제출해주시는 분께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십자말씀이는 함줄함울 지
면에 답을 직접 쓴 사진을, 기사 소감은 아래한글이나 워드로 A4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한 파일을 함줄함울 메일
(pclhamletter@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직분, 교구,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